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태국






Kingdom of Thailand

2021년 3월 30일 | 책임조사역(G3) 이주은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 | | | |
|--|--|---|--|
| 면적 513천 km ²  | 인구 6,980만명 (2020 ^e)  |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입헌군주제)  |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  |
| GDP 5,092억 달러 (2020 ^e)  | 1인당GDP 7,295 달러 (2020 ^e)  | 통화단위 Baht(Bt)  | 환율(U\$기준) 31.29 (2020 ^e)  |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 수출중심 제조업 발달에 힘입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왔으며, 열대성 기후와 청정해안을 보유한 연중 휴양지로 관광업이 발달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실시한 2019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제도적 집권 연장에 성공하였음. 이로써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되는 듯하였으나, 2020년 제1야당인 선진미래당의 해산조치를 기점으로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다수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8. 10. 1 수교 (북한과는 1975. 5. 8)

주요협정 무역협정('61), 항공협정('68), 이중과세방지협정('77),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범죄인인도조약('01), 해상운송협정('02), 문화교육협정('04), 수형자이송조약('12), 사법공조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18 | 2019 | 2020 | 주요품목 |
|-----|-----------|-----------|-----------|----------------|
| 수 출 | 8,504,994 | 7,804,095 | 6,852,947 | 합성수지, 철강, 반도체 |
| 수 입 | 5,582,443 | 5,317,602 | 5,195,921 | 반도체, 컴퓨터, 고무제품 |

해외직접투자 현황(2020년 말 누계,총투자기준) 1,195건, 2,839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e |
|----------|------|------|------|------|-------------------|
| 경제성장률 | 3.4 | 4.1 | 4.2 | 2.4 | -7.1 |
| 소비자물가상승률 | 0.2 | 0.7 | 1.1 | 0.7 | -0.4 |
| 재정수지/GDP | 0.6 | -0.4 | 0.1 | -0.8 | -5.2 |

자료: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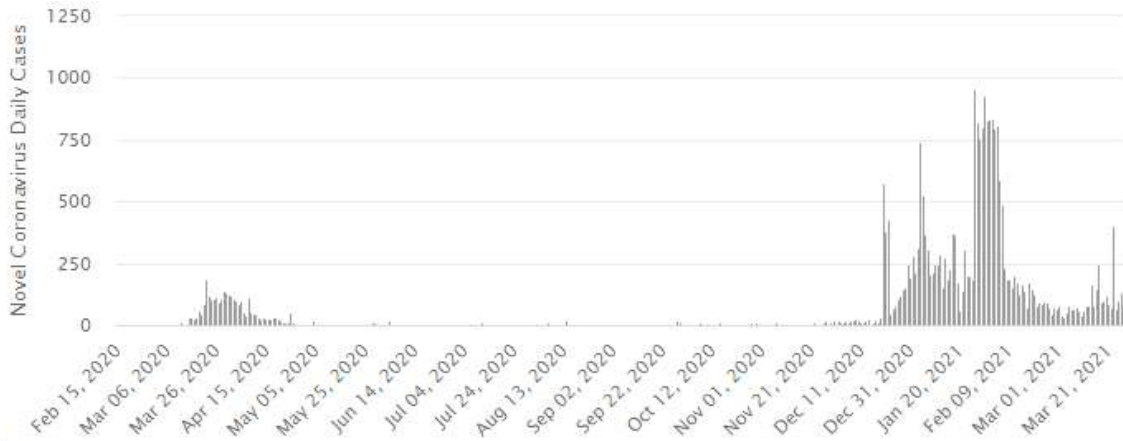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2020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 기록

- 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 대외거래 호조 등에 힘입어 2017~18년 4%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들어 수출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4%의 부진한 성장률을 나타냄. 이는 2014년 군사 쿠데타에 따른 정정 불안으로 1.0%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이러한 성장 둔화는 주로 미·중 무역갈등과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 둔화, 바트화 강세¹⁾에 따른 수출 감소와 관광객 감소, 2019년 7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예산안 승인 지연 등에서 기인하였음.
- 2019년 기준 수출은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62%, 관광업은 GDP의 11.1%를 차지하였음.
- 태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국가비상사태²⁾를 선포하였으며, 입국 금지, 수도 방콕을 포함한 일부 지역 봉쇄, 야간 통행금지 등을 실시하였음. 관광객 입국이 전면 중단되고 산업생산과 소비심리 등 경제활동 전반이 극도로 침체됨에 따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12.1%를 기록하였음. 심각한 경제 악영향이 나타나고 4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자 정부는 5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조치를 완화하였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7.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7.6%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6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8.0%, 소비자심리지수는 41.4를 기록하여 각각 전년 평균치인 -3.8%, 62.6에 비하여 크게 악화되었음. 12월 산업생산은 대내외 수요 회복에 따른 자동차 생산 재개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0.9%로 개선되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43.5로 6월 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2020년 1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하였으며, 왕실과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1년째 계속되면서 정치·사회 불안이 고조되는 등 경제활동 불안 요소가 상존함. 또한 2021년에도 대규모 관광객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등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4%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어 2019년 GDP 규모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2019년말 기준 달러화 대비 바트화 가치는 전년말 대비 7.1% 상승한 반면 태국의 양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 위안화 가치는 1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음.(IMF)

2) 국가비상사태는 당초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었으나 이후 4차례 연장되어 7월 말까지 실시되었음.

태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현황



* 자료: worldometers

중앙은행은 2020년 중 75bp 금리 인하 단행,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 기록

- 태국중앙은행(BOT)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2020년 2~5월 중 기준금리(key policy rate)를 세 차례에 걸쳐 75bp 인하, 2020년 말 기준금리는 0.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태국은 바트화 강세, 국내 수요 침체,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이후 근원 물가상승률이 1% 이하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해왔음. 이에 더해 2020년에는 에너지 국제 가격 하락과 수요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4%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도 제한적인 국내 수요 회복에 따라 여전히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가뭄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식료품 가격 인상 압력이 전체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³⁾.

재정수지는 균형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재정부담 급증

- 재정수지는 2019년 기준 GDP 대비 -0.8%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이후 매년 GDP의 -1~1% 수준을 유지해왔음.
- 다만, 인구 고령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 확대의 소지가 상존함.
- 2020년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수 감소에 더해 원천징수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각종 세금 납부 시한 연기 등의 감세 정책을 펼치고 경기부양 및 방역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 GDP 대비 -5.2% 수준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태국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시작하는 2021회계연도에서 기존의 정부 투자와 일반예산 금액을 각각 50%, 25%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재정적자 규모 확대에 따른 예산안 수립 부담 때문으로 보임.

3) Fitch Solutions, "Thailand Country Risk Report(Q1 2021)". 태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바스켓은 식음료(주류 제외) 33.5%, 운송·통신 25.5%, 주거·가구 24.1%, 기타 16.9%로 구성되어 식음료 가격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주요한 요소임.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e |
|-----------|---------|---------|---------|---------|-------------------|
| 경 상 수 지 | 43,438 | 43,952 | 28,423 | 38,206 | 19,800 |
| 경상수지/GDP | 10.5 | 9.6 | 5.6 | 7.0 | 3.9 |
| 상 품 수 지 | 35,776 | 32,581 | 22,388 | 26,725 | 36,743 |
| 상 품 수 출 | 213,487 | 233,688 | 251,108 | 242,701 | 215,999 |
| 상 품 수 입 | 177,711 | 201,107 | 228,720 | 215,976 | 179,256 |
| 외 환 보 유 액 | 164,148 | 194,048 | 197,031 | 214,573 | 246,034 |
| 총 외 채 | 132,200 | 157,583 | 169,241 | 178,999 | 191,598 |
| 총외채잔액/GDP | 32.0 | 34.5 | 33.4 | 32.9 | 37.6 |
| D.S.R. | 5.8 | 5.7 | 6.1 | 6.7 | 8.6 |

자료: IMF, EIU

관광업 타격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 태국은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의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생산 및 수출하는 가공무역과 쌀, 타피오카, 설탕 등 식품류 중심의 상품수출이 활발해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하고 있음. 2020년에는 산업활동 급감, 세계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상품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하락,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수입이 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오히려 전년 대비 37.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태국은 세계 2위의 에어컨 수출국이자 6위의 컴퓨터 수출국이며, 혼다, 이스즈, 닛산,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임.
- 또한 태국은 2019년 기준 인도에 이어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전 세계 쌀 수출액의 19.2% 점유)이며 이외에 고무, 타피오카, 설탕, 냉동식품 및 통조림 등의 수출도 활발함.
- 한편,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태국은 2019년 연간 4천만 명 수준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243억 달러 규모의 양호한 서비스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분기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막히며 서비스수지가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서비스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2020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3.9%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외채상환능력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풍부하고 외채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

-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약 2,4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월평균수입액 대비 12.2개월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총수출액 감소 영향으로 2019년 6.6%에서 2020년 8.5%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외채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함.
- 2020년 9월말 기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51.5%⁴⁾로 다소 높은 편이나,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단기외채잔액 감소 및 외환보유액 증가에 힘입어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추이(%): 35.4('17) → 32.2('18) → 31.5('19) → 27.5('20)

4)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차주 앞 ECA 공적수출신용채권 기준(OECD)

구조적취약성

관광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관광업은 2019년 기준 태국 총수출의 약 18% 및 GDP의 약 11%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외화획득과 고용 창출에 기여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해외 관광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태국은 ASEAN에서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았음.
- 2020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670만 명으로, 이 중 669만 명은 국경 봉쇄가 시작되기 전인 1분기에 방문하였음. 2019년 약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약 637.5억 달러 규모를 지출한 데 반해, 2020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10억 달러에 불과하여 그 차이가 2020년 GDP의 약 10%에 달함.
- 태국 정부는 2020년 10월부터 중국발 노선을 시작으로 관광 목적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내국인의 관광을 독려하고 있으나, 2019년 수준의 관광업 경기 회복이 가능한 시점은 예상하기 어려움.
- 2021년 1월 태국 공중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2022년 말까지 태국 인구의 70%가 면역을 형성토록 하겠다고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태국 내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2023년은 되어야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지난 2월 23일, 프라윛 총리는 관광업 회복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2주 격리 기간을 면제하는 정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힘.

인구 고령화와 주변국 대비 높은 임금수준으로 제조기지로써 경쟁력 약화

- 태국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미얀마 등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노동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2020년 1월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의 생산가능인구(15-59세)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40년 56%로 감소하고, 노년층 비중은 같은 기간 18%에서 31%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총선 공약 이행으로 2013년 171~221바트 수준이던 일일 최저임금이 300바트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2018년 4월 5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여 1일당 325바트(약 10.4달러)로 상승하였음.
- 태국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 출신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얀마의 일일 최저임금은 약 3.6달러로, 주변국 대비 태국의 임금 수준이 높은 편임.
- 노동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은 민간투자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요인이 됨.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다변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기지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태국은 상대적인 고임금으로 베트남 등 주변국에 비해 불리한 입장임.

성장잠재력

외국인투자예 우호적인 기업환경과 양호한 인프라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군부 집권이 계속되면서 비교적 효율적인 사법제도와 납세 시스템 등 주변국 대비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마련하였음.
-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태국은 190개국 중 21위로 전년(27위) 보다 순위가 6단계 상승하였음. 이는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 다음, 아시아 전체에서는 여섯 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원활한 전력 공급, 편리한 납세 시스템, 주변국과의 무역을 위한 제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9년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 태국은 141개국 중 40위를 기록했으며, 금융 시스템(16위), 시장규모(18위), 시장 역동성(21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 현대화된 고속도로와 항구, 광범위한 항공 운송망을 갖추어 철도 수송망이 노후한 점을 제외하고는 교통 인프라가 매우 양호함. 정부는 방콕에서 치앙마이, 나콘 라차시마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 철도 건설을 추진 중임.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고수익형 미래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난항

- 태국에서는 학위 취득에 대한 선호가 높아 중산층 이상에서는 대학원 졸업 수준의 고학력자가 많은 반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및 교육 수준 차이가 커 농촌을 포함 시 평균적인 교육의 질이 미흡함. 이에 따라 태국 내에서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부문인 정보통신, 과학,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자는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등 교육 수준과 일자리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임.
- 보편적인 고등교육 체계의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체할 고수익형 미래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 저임금 노동력을 요하는 산업의 경우 미얀마, 라오스 등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인접국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바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음.

정책성과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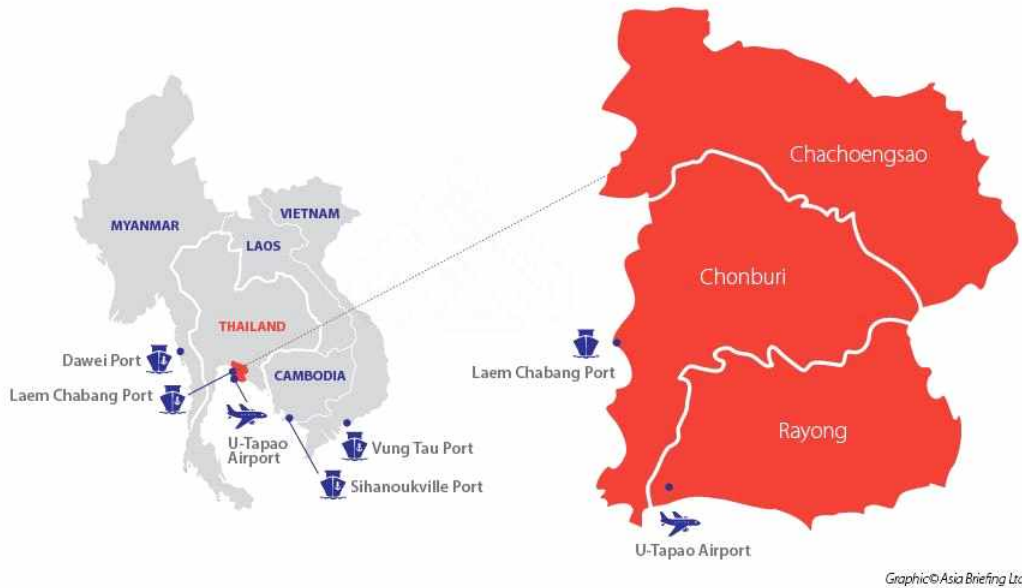
- 태국 정부는 2017년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5월 이를 발족하였음. 동 계획은 2021년까지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13,285km²에 해당하는 동부 해안 지역(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을 태국 무역과 물류의 핵심이 되는 최첨단 산업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태국 정부는 동 지역이 동아시아, ASEAN, 인도 등 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기존에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차세대 아시아 관문이 될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 적합하다고 발표하였음.
- 태국 정부는 EEC 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2021년말까지 EEC 전체 면적의 약 50% 지역에서 5G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지 내 기업들이 스마트 공장과 빠른 물류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힘.
- 한편, 2021년 1월 태국 정부는 EEC에 세계 11위 규모의 자동차 제조단지가 들어섰고 대규모 가전 제품 생산설비와 하드디스크 제조공장도 가동을 시작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투자가 잠시 늦춰졌으나 EEC 프로젝트 진행에는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음.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개요

| 구 분 | 내 용 |
|---------|--|
| 기 간 | 2017~21년 |
| 총 예산규모 |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
| 목 적 |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
| 주요 내용 | 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 3개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을 육성 |
| 승인 프로젝트 |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
| 규제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8~10개월로 단축 (기존 24개월) - 법인세 면제기간: 15년으로 연장(통상 8년) - 토지 임대기간: 최장 99년까지 인정 -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무관세 - 국가경쟁력기금을 설치하여 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
| 기 타 | 동 개발계획을 헌법이 규정한 '20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 |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대상지역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경기부양책 추진

- 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과 관광업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태국 정부는 2020년 중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도입하였음.
- 2020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기업에 대한 저리 융자 및 세제 혜택, 국민 앞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긴급대출 지원 등 직·간접적인 정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이어 4월 3일 정부는 1.9조 바트(2019년 GDP의 11%)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여 인프라 투자 및 금융 지원에 사용한다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음. 이중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이 1조 바트로, 이 금액은 헬스케어 및 국민건강 분야, 경제활동 재건 및 지역 인프라 투자에 사용하며 나머지 9천억 바트는 BOT가 차입을 통해 마련하여 중소기업 앞 장기저리대출, 기업채권 안정화펀드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하였음.
-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에서 2020년 50%, 2021년 5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IMF). 태국의 재정책임법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정치안정

강력한 왕실과 군부가 공존하는 가운데 쿠데타 빈발

- 절대왕정 국가였던 태국은 1932년 군부 쿠데타로 입헌군주국이 된 이래 2020년까지 19차례 쿠데타가 발생하였음. 전대 국왕인 푸미폰 국왕은 대중적인 인기와 존경을 받으며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고 재위 70년간 대부분의 쿠데타를 추인하였으며, 군부와 왕실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왔음.

친탁신파와 반탁신파 간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 지속

- 2001~06년 중 총리로 재임한 탁신 친나왓은 친농민정책을 실시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으나, 2006년 1월 친코퍼레이션(탁신 친나왓이 설립한 정보통신회사)을 싱가포르 국영기업에 매각하여 큰 이득을 취한 것이 알려지면서 자국의 주요 기업을 해외에 매각하고 소득세 납부를 누락한 것에 대한 반발로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음.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자 2006년 9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탁신은 해외로 망명하였음.
- 2007년 12월 총선에서 친탁신파인 인민역량당이 승리하였으나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 부정을 이유로 인민역량당을 해산하였음. 이후 2009년 반탁신파가 집권하자 친탁신파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으며 정치적 혼란 끝에 2011년 7월 조기총선을 실시, 탁신의 여동생 잉락이 총리로 선출되었음. 이후 2013년 탁신 사면의 포석이 되는 정치인 사면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잉락 총리가 파면되는 등 장기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음.
- 탁신과 잉락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농민과 도시 빈민이 다수로, 2006년 탁신 총리 실각 당시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빨간색 셔츠를 입고 시위에 나서 '레드셔츠'로 불림. 한편 당시 탁신 정부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이끌던 세력은 도시 중산층과 기존 엘리트 위주로, 국왕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왕을 상징하는 노란색 셔츠를 입어 '옐로셔츠'로 불림.

태국 정치 친탁신파-반탁신파 관련 주요 사건

| 시 기 | 내 용 |
|------------|--|
| 2006년 1월 | 탁신 총리의 친코퍼레이션 매각이 알려지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 발생 |
| 2006년 9월 | 군부 쿠데타: 탁신 정부와 여당인 타이애국당 해산 조치, 탁신 해외 망명 |
| 2007년 12월 | 군부 과도정부 총선 실시: 친탁신계 인민역량당 승리 |
| 2008년 12월 | 헌법재판소가 선거 부정을 이유로 인민역량당 해산 조치 제1야당이던 민주당 집권 |
| 2010년 3~5월 | 대법원의 탁신 재산 60% 몰수 판결(2월) 이후 친탁신 세력의 대규모 시위 발생 및 격화, 사망자 다수 발생 |
| 2011년 7월 | 조기총선 실시, 인민역량당 해산 후 창당된 친탁신 푸어타이당이 과반 득표하며 탁신의 여동생 잉락이 총리로 선출 |
| 2013년 10월 | 정치인 사면법이 하원을 통과, 이후 반정부 시위가 격화함에 따라 입안 중지 |
| 2014년 2~3월 |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조기총선 실시, 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 |
| 2014년 5월 | 헌법재판소에 의해 잉락 총리 파면 5월 20일 프라윗 육군 참모총장 계엄령 선포, 22일 쿠데타로 권력 장악 |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2019년 총선을 통해 제도적 집권 연장에 성공

- 잉락 총리 파면 후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를 발족한 뒤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프라윗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를 필두로 과도정부를 출범하고,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제하였음.
- 군부는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였고, 동 헌법은 2017년 4월 발효되었음. 주요 개정내용은 국회의원이 아닌 자도 총리가 될 수 있으며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하원의원은 유권자가 선출하되 상원의원은 전원 NCPO가 임명한다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통한 군부의 합법적 집권이 가능토록 하였음. 군은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한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음.
- 2019년 3월 하원의원 선거 결과 군부가 창당한 팔랑프라차랏당이 116석을 확보하였으며 민주계인 푸어타이당은 137석, 선진미래당은 80석을 차지하였음. 팔랑프라차랏당은 선거로 획득한 하원 116석에 일부 군소정당 소속 의원을 포섭하고,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프라윗 총리를 재선출하는 데 성공하여 군부의 집권이 제도적으로 연장되었음.
- 군부는 헌법에 의해 상원의원 의석 250석(상하원 총의석의 33.3%에 해당)을 보장받음에 따라 정권 교체 및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 제도하에서는 선거를 통한 지속적인 재집권 가능성이 높음.

사회안정

정부와 왕실에 반대하는 민주화 시위 1년째 지속

- 2020년 2월부터 지식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개헌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7월부터 방콕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다시 개최되기 시작해 2021년 2월 현재까지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음. 태국 정부는 2020년 8월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 9명을 체포하였으며, SNS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면서 특히 태국 왕실 비판의 장이 되는 경우 페이스북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음.
- 2020년 2월 헌법재판소가 제2야당인 선진미래당을 해산 조치한 것을 기점으로 2014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선진미래당은 2019년 총선에서 개혁과 민주화를 내걸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표를 얻어 하원 80석을 차지하며 제2야당이 되었으나, 군부가 총선 직후 불법 선거자금 모금 혐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 끝에 해산되었음.
- 시위 발생 초기에는 개헌과 정부 조직 개혁이 주된 요구사항이었으나, 이후 왕실 재정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추가되는 등 왕실 개혁을 포함한 민주화 시위로 확대되었음. 태국 정부는 이러한 요구가 태국 왕실의 명예를 공격하는 행위라며 민주화 운동을 압박하는 구실로 삼고 있으며, 시위대는 왕실 모독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 현행법상 태국 왕실은 국가 재정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

- 시위 주도자 체포, 물대포·최루가스 등을 동원한 물리적 진압, SNS 검열 등 강경 대처에도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자 2020년 10월 태국 정부는 개헌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실질적인 개헌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민주화 시위와 이에 대한 진압이 계속되고 있음.

국제관계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 창설에 참여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도모함.
- 또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였으며, 상품 관세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탁신 정부 이후 소규모 경제권 위주의 FTA 추진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 중임.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일본, 칠레와 양자간 FTA 협정을 기 체결했으며, 태국이 속한 ASEAN은 중국, 한국, 홍콩 등과 다자간 FTA 협상을 기 체결하였음.
 - 2020년 11월에는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되었음.
-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당초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가입 예정이었으나 인도는 최종 협상 타결 전 불참 결정
- 향후 태국은 2013년 최초 개시된 EU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절차적 진전이 미미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임.
-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 주도로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0년 9월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로부터의 금융지원액은 72.8억 달러(단기 37.5억 달러, 중장기 35.3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13백만 달러(연체율 0.2%)로 채무상환태도가 양호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등급 | 종전 평가등급 |
|---------|---------------|---------------|
| OECD | 3등급(2020.06) | 3등급(2019.02) |
| Moody's | Baa1(2017.07) | Baa1(2014.06) |
| Fitch | BBB+(2018.12) | BBB+(2017.06) |

OECD 및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양호한 기존 신용등급 유지

-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위 지속으로 인한 사회 불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외채상환능력과 재정건전성, 은행 부문 건전성 등 경제적 강점에 힘입어 등에 힘입어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양호한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음.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허브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3%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대외 거래, 내수, 관광객 방문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며 2020년 -7.1%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다만, 관광 수입 급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였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2019년 총선을 통해 제도적인 집권 유지에 성공하였음. 그러나 군부 집권에 유리한 개헌, 야당 해산 조치, 왕실에 대한 불만 등이 민주화 시위로 표출되어 2020년 3월부터 평가일 현재까지 소요가 지속되고 있는 등 사회 불안이 높은 상황임.
-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에 힘쓰고 있어 주변국 대비 관련 제도와 인프라 등 투자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다수 체결하는 등 투자 유치와 대외거래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외채 관련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며,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외환보유액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시 대외지급능력은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